

음악교사전문성 척도 개발 및 인식 수준 분석

홍 인 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등학교 음악교사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 인식 수준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종합·정리하여 음악교사전문성의 구성요소를 탐색하여 예비 척도를 제작하고, 397명의 중등학교 음악교사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음악교사전문성 척도는 4개 영역에서 6개 하위요소의 총 31문항에 대한 구인 타당도 및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악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수준은 성별, 경력, 학력, 학교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급, 음악 교과 관련 연구회나 학회 활동 경험, 대학 강사나 연수 강사 경험, 음악 교직 관련 수상 경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중등학교 음악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음악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교사전문성, 음악교사전문성, 척도 개발

차 례

I. 서 론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절차
3. 자료분석

III. 연구결과

1. 음악교사전문성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2. 배경변인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 인식 수준 분석

IV. 결론 및 제언

*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박사과정

I. 서론

학교교육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은 필수조건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으며, 교사의 전문성 제고는 시대 및 사회적 요구이며 국가적 과제이다. 학교에서 교사는 교육의 핵심이며, 교사들의 전문성 확립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핵심과제가 된다. 성공적인 학교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교사의 전문성은 학교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교사전문성이란, 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 능력,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교육 및 교수학습에 관한 관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및 지적 수월성과 교사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인하는 심층적 특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김이경, 2006, 20). 교원의 전문성은 이렇게 교육적 성장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고, 학생들의 변화를 파악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지식을 재해석하여 그들의 교육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이종재, 김왕준, 2003, 262-263). 백순근(2005)은 교직수행지능(practical intelligence for teachers)이라는 개념을 통해 교사의 수행을 강조하였다. 성공적인 교사, 즉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지능(academic intelligence)’과 ‘실천지능(practical intelligence)’을 모두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과 같은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특히 실천지능처럼 산업화 시대와 다소 다른 자질이나 특성이 요청된다고 하였으며 이를 ‘교직수행지능’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의 전문성과 관해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직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수행, 태도를 기본 요건으로 구성요소를 구분하였다. 이돈희(2000)는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지식, 효과적인 지도 기술, 학생의 성장을 관리하는 능력, 도덕적 모범의 실천을 교사전문성의 구성요소로 보았고, 조동섭(2005)은 지식기반 전문성(일반교육학지식, 교과내용지식, 교과수업지식, 상황지식), 능력기반 전문성(수업수행능력, 학급경영능력, 학생상담능력), 신념기반 전문성(교직적 인식, 교직관, 소명의식, 태도)로 보았다. 김옥예(2006)는 지식기반 전문성(교과지식과 교과의 특성 및 활용과 관련된 지식), 기술적 전문성(수업, 생활지도 등에서 발휘되는 운영상의 노하우), 신념기반 전문성(학생에 대한 헌신, 교직관, 직무수행에 대한 윤리 의식 등)을 교사전문성의 구성요소로 보았다. 이와 같이 교사전문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정리한 결과, 많은 학자들이 교직에서 필요한 전문적 능력을 지식, 수행, 태도로 구분함을 알 수 있다(허은정, 2011,

59). 그러나 교사전문성은 개별교과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교사전문성은 지식, 수행, 태도의 영역에서 각 영역을 대표하는 요소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음악교사의 교수 상황에서 음악교사만이 갖는 고유한 영역을 제시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또한 교사전문성 측정 척도들이 음악교사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한 타당한 척도인지에 관한 연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음악교사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질 높은 음악 교육을 실천해내는 일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학교에서 음악교사는 심미적인 교육을 하는 고유한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개개인이 가지는 인간적인 속성에 관여하고, 음악의 본질과 가치를 다루며, 사회적 기능을 수반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창의 · 인성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음악교사는 중요한 책무성을 가진다. 그러나 지금의 음악 교육 환경은 과도한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속에서 음악 수업 시수의 부족, 음악 교과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학교 교육 관리자의 인식 부족으로 음악교사로 하여금 사기나 의욕을 저하시켜 음악 교육의 질을 낮추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음악교사는 학교와 교실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독립적이고 고립적으로 교수 · 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교육 환경에 처해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이 연구에서는 음악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음악 교육의 주체인 음악교사가 어떠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구성요소를 탐색하여 음악교사전문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음악교사전문성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음악교사의 자질(민경훈 외, 2010; 성경희, 1988; 임미경 외, 2004; 조흥기, 2004; 최은식, 2006; Edwards, 1970; Hoffer, 1993; MENC, 1972; 1987; Michael, 1992; Raiman, 1975; Tayler, 1980) 음악교사 양성 제도(변미혜, 2013), 음악교사 자격 기준(석문주, 2008; 이인제, 장기범, 2008), 음악 교수 역량(민경훈, 2014), 음악과 수업 평가 기준(임찬빈, 이경언, 2006), 음악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 등의 다양한 각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지식, 수행, 태도의 관점에서 그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검증된 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우리나라 중등학교 음악교사의 전문성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음악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분석함으로써 음악교사 전문성 신장 및 개발을 위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음악 교원 양성 교육과정 및 음악교사전문성 개발 연수 프로그램의 구성 및 개선에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음악교사전문성 측정도구는 타당한가?

<연구문제2> 음악교사전문성 측정도구는 신뢰로운가?

<연구문제3> 음악교사전문성의 인식 수준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전문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교직 수행과정에서 전문성의 개발과 신장에 관심을 갖는 교사가 연구 참여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중등학교 음악교사 중 음악 교과 관련 연수나 음악 교과 관련 연구회 등의 전문성 신장 활동에 참여하는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2014년 7월과 8월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 조사에는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인천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지역의 16개 시·도 교육청 소속의 음악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 406부(회수율: 81.8%) 중 이상치가 발견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9부를 제외한 397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문항에 따라 무 응답자가 있어 하위 변수별 최종 응답자 수는 다소 다를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설문 응답자의 배경 변인 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배경 변인 별 분포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109	27.5
	여자	288	72.5
교직 경력	5년미만	112	28.2
	5년이상~10년미만	45	11.3
	10년이상~15년미만	32	8.1
	15년이상~20년미만	30	7.6
	20년이상	178	44.8
최종 학력	대학졸업	189	47.6
	석사졸업	204	51.4
	박사과정이상	4	1.0

구분		빈도(n)	백분율(%)
소속 학교 급	중학교	241	61.2
	고등학교	153	38.8
소속 학급 규모	10학급이하	79	20.1
	11~20학급이하	99	25.1
	21~30학급이하	138	35.0
	31학급이상	78	19.8
음악 교과 관련 연구회 또는 학회 활동 경험	유	261	65.9
	무	135	34.1
대학 강사 또는 연수 강사 경험	유	97	24.6
	무	298	75.4
음악 교직 수행 관련 수상 경력	유	125	31.5
	무	272	68.5
합계		397	100.0

음악교사의 성별은 남자교사가 109명(27.5%), 여자교사가 288명(72.5%)이고, 교직 경력은 5년 미만이 112명(28.2%), 5년 이상 10년 미만이 45명(11.3%),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32명(8.1%),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30명(7.6%), 20년 이상이 178명(44.8%)이다. 최종 학력은 대학 졸업이 189명(47.6%), 석사 졸업이 204명(51.4%), 박사과정 이상이 4명(1.0%)이다. 소속 학급은 중학교가 241명(61.2%), 고등학교가 153명(38.8%)이며, 소속 학교의 학급 수는 10학급이하가 79명(20.1%), 11학급에서 20학급이하가 99명(25.1%), 21학급에서 30학급이하가 138명(35.0%), 31학급이상이 78명(19.8%)이다. 음악 교과 관련 연구회 또는 학회 활동 경험이 있는 음악교사는 261명(65.9%)이고 활동 경험이 없는 교사는 135명(34.1%)이다. 대학 강사 또는 연수 강사 경험이 있는 교사는 97명(24.6%)이고, 강사 경험이 없는 교사는 298명(75.4%)이다. 음악 교직 관련 수상 경력(ex. 수업연구대회, 수석교사 등)이 있는 교사는 125명(31.5%)이고 수상 경력이 없는 교사는 272명(68.5%)이다.

2. 연구절차

음악교사전문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교사전문성 및 음악교사의 전문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음악교사전문성 1차 시안 제작 및 검토, 음악교사전문성의 내용 타당도 및 안면 타당도 검증, 음악교사전문성의 예비 조사 실시, 내용 타당도 재검증, 최종 시안 확정, 본 조사 실시의 순서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절차는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교사전문성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음악교사전문성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음악교사전문성의 1차 시안 제작



내용 타당도 및 안면타당도 검증
예비 조사 및 결과 분석
내용 타당도 재검증
최종 시안 확정



2014년 7-8월 본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최종적으로 4개 영역에서 6개 요소의 총 31문항의 척도 개발
배경변인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의 인식 수준 분석

[그림 1] 연구절차 요약

1) 음악교사전문성 구성요소 탐색

먼저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도출한 교사전문성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때 문항은 선행연구에 의해 만들어진 교사전문성 측정 문항들을 참고로 개발되었는데, 대부분이 특정 교과 전문성이 아닌 교육학 관련 전문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인 교과 내용 관련 전문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교사전문성 측정도구는 음악 교수 상황에서 음악교사만이 갖는 고유한 영역을 제시하기에는 불충분하며, 교사전문성 측정도구들이 음악교사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한 보편타당한 척도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음악교사의 전문성을 ‘현장 음악교사가 음악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수행능력 및 태도를 포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음악교사전문성의 측정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교사전문성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분석하여 교사전문성의 구성요소가 지식, 수행, 태도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음악교사의 수행영역은 음악 교수·학습에서 실제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수행영역은 수행 I(교과지도)과

수행Ⅱ(학습지원)로 구분하여 영역을 설정하여, 그 구성요소를 지식, 수행Ⅰ(교과지도), 수행Ⅱ(학습지원), 태도로 분류하였다.

음악교사전문성의 각 영역별 구성요소는 국·내외의 음악교사의 자질 기준, 음악교사의 자격 기준, 음악 교원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 음악 교수 역량 관련 연구, 음악과 수업 평가 기준, 음악과 교육과정 등의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해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46개의 문항으로 구성요소를 탐색하였다.

2) 내용 타당도 및 안면 타당도

선별된 46개의 문항은, 관련 분야 교수 4인, 음악교사 출신 장학사 1인, 현장 음악교사 5인, 교육학 박사 1인, 교육학 석·박사과정 1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 회로부터 5차례에 걸쳐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선별된 46개의 문항이 음악교사전문성의 하위 영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 하기 위해 각 하위영역의 문항을 5점 Likert 척도 형태로 제작하였다. 각 문항들 에 대해 전문가 협의회 구성원들이 그 문항이 하위영역을 측정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행연구를 통해 탐색된 음악교사전문성의 구성요소를 수정 및 보완하여, 총 33개의 예비 조사 문항을 선정하였다.

3) 예비 조사

예비 조사는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33문항으로 중등학교 음악교사 30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0명에게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나, 그 중 26부가 회수되 었다. 예비 조사를 통해 문항내용의 이해도 및 문항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예비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 문항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부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은 후 음악 교사전문성 척도의 최종 시안을 확정하였다.

4) 측정 도구

예비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 된 음악교사전문성의 측정 도구는 지 식, 수행Ⅰ(교과지도), 수행Ⅱ(학습지원), 태도의 4가지 영역의 33문항으로 확정하 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 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과 같이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

하도록 제작하였다. 음악교사전문성 예비척도의 영역별 요인과 구성 문항 수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음악교사전문성의 예비 척도의 영역별 요인과 구성문항 수

영역	문항 수 (문항번호)
지식	9 (1-9문항)
수행 I (교과지도)	9 (10-18문항)
수행 II (학습지원)	6 (19-24문항)
태도	9 (25-33문항)
총	33문항

3. 자료 분석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변인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음악교사전문성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요인추출을 위해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식과 직각회전 방식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Varimax 요인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분석은 내적 일관성 방법으로 Cronbach alpha 계수가 사용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배경 변인들과 척도의 하위영역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1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여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음악교사전문성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먼저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검정한 결과, KMO=0.946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는 $df=465$, $\chi^2(465)=7983.933$, $p=0.000$ 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따라서 음악교사전문성 척도의 요인이 잘 묶여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33개 문항을 모두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요인 적재 값 0.4 기준), 2개 문항(18, 30번)은 요인 부하량이 낮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31개 문항은 총 4개의 요인으로 나뉘고, 4개 요인에 의해 전체 변동의 60.877%를 설명하였다. 음악교사전문성 척도에 대한 1차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음악교사전문성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I

	태도	지식	수행Ⅱ	수행Ⅰ
문항 수	8	9	6	8
요인부하량	.645-.764	.523-.772	.533-.850	.421-.757
고유값	5.898	5.234	4.002	3.738
%분산	19.026	16.884	12.910	12.057
%누적	19.026	35.910	48.820	60.877

다음으로 4개 요인에 대해 설정한 하위요소들이 잘 묶여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별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도와 수행Ⅰ의 경우 각각 8문항씩 1개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설명력은 각각 65.252%, 53.406%로 나타났다. 지식의 경우 음악교과지식의 6문항, 학생이해의 3문항으로 2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설명력은 음악교과지식이 42.882%, 학생이해가 24.929%로 지식영역의 총 설명력은 67.811%로 나타났다. 수행Ⅱ의 경우 음악학습 환경조성의 3문항, 음악학습 평가의 3문항으로 2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음악학습 평가는 38.242%, 음악학습환경조성은 37.886%로 수행Ⅱ영역의 총 설명력은 76.128%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악교사전문성 척도 33개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 문항이 삭제되었고, 총 31개 문항에 대한 4개 영역의

6개 하위요소가 추출되었다. 각 영역별로 실시한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음악교사전문성 척도에 대한 각 영역별 요인분석 결과

문항	태도	지식		수행Ⅱ		수행Ⅰ
	태도	음악교과 지식	학생이해	음악학습 평가	음악학습 환경조성	음악교과 지도
25번	.831					
26번	.825					
28번	.820					
33번	.812					
27번	.804					
31번	.803					
29번	.794					
32번	.773					
6번		.828				
5번		.813				
9번		.799				
7번		.783				
8번		.732				
4번		.713				
2번			.842			
1번			.803			
3번			.672			
23번				.837		
22번				.820		
24번				.776		
20번					.862	
19번					.849	
21번					.724	
15번						.830
16번						.807
17번						.775
14번						.768
10번						.682
12번						.671
11번						.650
13번						.636
고유값	5.220	3.859	2.244	2.295	2.273	4.272
% 분산	65.252	42.882	24.929	38.242	37.886	53.406
% 누적	65.252	42.882	(67.811)	38.242	(76.128)	53.406

다음으로 요인별 문항들 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지식영역의 전체 신뢰도는 0.900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이해 3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0.745, 음악교과지식 6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0.904로 나타났다. 수행 I의 8문항의 신뢰도는 0.866으로 나타났고, 수행 II의 전체 신뢰도는 0.880으로 하위요소의 음악학습평가 3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0.842, 음악학습환경조성 3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0.836으로 나타났다. 태도 8문항의 신뢰도는 0.92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음악교사전문성 31개 문항의 전체 신뢰도를 살펴보면 Cronbach의 알파값이 0.95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31개 문항은 모두 음악교사 전문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동일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구성요소 별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음악교사전문성 구성요소 별 신뢰도 계수

구성요소		문항 수	Cronbach's alpha	
지식	학생이해	3	.745	.900
	음악교과지식	6	.904	
수행 I (교과지도)	음악교과지도	8	.866	
수행 II (학습지원)	음악학습평가	3	.842	.880
	음악학습환경조성	3	.836	
태도	태도	8	.923	
전체		31	.955	

이상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31개의 음악교사전문성의 측정 문항을 확인하였으며, 음악교사전문성 척도의 문항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음악교사전문성 척도의 최종 문항

영역	요인	문항내용
지식	학생 이해	1. 학생의 인지·정서·신체발달 이해
		2. 학생의 가정·사회·문화적 환경 이해
		3. 음악 활동 관련 선행학습과 학습요구의 이해
	음악 교과 지식	4. 음악 이론에 관한 이해
		5. 음악의 사회·문화·역사적 맥락 이해
		6. 다양한 시대·지역·문화권의 음악 이해
		7. 음악 교육 철학에 대한 지식
		8.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9. 음악 교수법에 대한 지식

영역	요인	문항내용
수행 I (교과지 도)	음악 교과 지도	10. 노래를 정확하게 부르는 능력
		11. 악곡을 반주하는 능력
		12. 주 전공 이외에 다른 악기로 연주하는 능력
		13. 악곡을 창작하고 편곡하는 능력
		14. 합창이나 합주를 지휘하는 능력
		15. 음악 연주를 듣고 비평하는 능력
		16. 음악 수업 목표에 따른 음악 수업 계획 능력
		17. 음악 수업 내용에 따른 방법 및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
수행 II (학습지 원)	음악 학습 평가	18.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
		19. 음악 평가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평가 방법의 활용 능력
		20. 음악 평가 요소와 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능력
	음악 학습 환경 구성	21. 음악 평가 결과를 학생의 진로 지도 및 수업 개선에 활용하는 능력
		22. 음악 수업을 지원하는 학교 환경 조성 능력
		23.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능력
태도	태도	24. 음악 동아리의 민주적 운영 능력
		25. 건전한 인성
		26. 교직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
		27. 음악 문화 전수자로서의 사명감
		28. 학생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9. 학생이 음악적 잠재력 발휘하도록 관심을 가지는 태도
		30. 음악교사로서 동료, 학부모, 행정가, 지역 인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자세
		31. 음악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열의
		32. 음악 교육 방법 및 내용에 대한 개선 의지
		33.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개발 활동 참여

(18, 30의 음영처리 부분은 최종 척도에서 삭제된 문항임)

2. 배경변인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 인식 수준 분석

음악교사의 배경변인(성별, 경력, 학력, 학교 급, 학교 규모, 음악교과 관련 연구회 또는 학회 활동 경험, 대학 강사 또는 연수 강사 경험, 음악 교직 수행 관련 수상 경력)에 따라 음악교사전문성의 각 영역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총 397명의 음악교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음악교사전문성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구하였다. 전체적인 음악교사전문성의 평균은 4.15로 나타났으며, 요인별로 살펴보면 태도가 4.35로 가장 높았고 음악학습 환경조성이 3.93으로 가장 낮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음악교사전문성의 기술통계

요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식	학생이해	3.94	0.53	2.33	5.00
	음악교과지식	4.10	0.55	2.00	5.00
	계	4.04	0.49	2.33	5.00
수행 I (교과지도)	음악교과지도	4.17	0.54	1.63	5.00
수행 II (학습지원)	음악학습평가	4.06	0.59	2.33	5.00
	음악학습환경조성	3.93	0.68	1.00	5.00
	계	4.00	0.58	2.00	5.00
태도	태도	4.35	0.52	2.75	5.00
전체		4.15	0.45	2.42	5.00

1) 성별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

성별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의 인식 수준 차이를 전체적으로 비교한 결과, 남교사의 평균이 4.11, 여교사의 평균이 4.16으로 나타났으며 $p=0.325$ 로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역별로 살펴보면 지식의 학생이해와 태도에서 성별에 따른 인식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식의 학생이해를 살펴보면 $p=0.029$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남교사가 3.83, 여교사가 3.98로 나타나 여교사의 학생 이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태도를 살펴보면 $p=0.004$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남교사가 4.24, 여교사가 4.40으로 여교사의 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요소들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성별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df	t	p- value
지식	학생이해	남자	109	3.83	0.59	173.151	-2.207	.029*
		여자	287	3.98	0.51			
	음악교과 지식	남자	109	4.05	0.63	393	-1.142	.254
		여자	286	4.12	0.51			
	계	남자	109	3.98	0.57	393	-1.690	.092
		여자	286	4.07	0.46			
수행 I (교과 지도)	음악교과 지도	남자	109	4.17	0.59	390	0.145	.885
		여자	283	4.16	0.53			
수행 II (학습 지원)	음악학습 평가	남자	109	4.10	0.62	393	0.738	.461
		여자	286	4.05	0.58			
	음악학습 환경조성	남자	109	4.04	0.63	392	1.900	.058
		여자	285	3.89	0.70			
	계	남자	109	4.07	0.58	392	1.490	.137
		여자	285	3.97	0.58			
태도	태도	남자	109	4.24	0.53	393	-2.868	.004**
		여자	286	4.40	0.50			
전체		남자	109	4.11	0.50	387	-0.986	.325
		여자	280	4.16	0.43			

*p<0.05, **p<0.01

2) 교직 경력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

교직 경력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의 인식 수준 차이를 비교한 결과, $p=0.064$ 로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역별로 살펴보면 수행 II에서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행 II의 음악학습평가를 살펴보면 $p=0.016$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15년~20년 미만이 4.25로 가장 높고 5년 미만이 3.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쉘페(Scheffe)의 사후검정을 한 결과에서는 5개 집단들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쉘페(Scheffe)가 보수적인 방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소 비보수적인 던컨(Duncan)의 사후검정을 실행해보면 5년~10년 미만과 15년~20년 미만의 집단이 5년 미만인 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행 II의 음악학습환경조성을 살펴보면 $p=0.000$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15년~20년 미만이 4.13으로 가장 높고 5년 미만이 3.7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쉘페(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 15년~20년 미만의 집단이 5년 미만인 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

행Ⅱ 전체를 살펴보면 $p=0.000$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15년~20년 미만이 4.20으로 가장 높고 5년 미만이 3.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쉐페(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 15년~20년 미만의 집단이 5년 미만인 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요소들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교직 경력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df	F	p- value
지식	학생 이해	5년 미만	112	3.92	0.56	395	1.506	.200
		5년~10년 미만	45	4.09	0.52			
		10년~15년 미만	32	3.95	0.49			
		15년~20년 미만	30	4.03	0.54			
		20년 이상	177	3.89	0.53			
	음악 교과 지식	5년 미만	112	4.10	0.60	394	1.592	.176
		5년~10년 미만	45	4.27	0.49			
		10년~15년 미만	32	4.17	0.47			
		15년~20년 미만	30	4.06	0.56			
		20년 이상	176	4.05	0.53			
	계	5년 미만	112	4.04	0.53	394	1.723	.144
		5년~10년 미만	45	4.21	0.47			
		10년~15년 미만	32	4.10	0.46			
		15년~20년 미만	30	4.05	0.52			
		20년 이상	176	4.00	0.48			
수행Ⅰ (교과 지도)	음악 교과 지도	5년 미만	112	4.14	0.58	391	2.223	.066
		5년~10년 미만	43	4.40	0.54			
		10년~15년 미만	32	4.14	0.52			
		15년~20년 미만	30	4.18	0.48			
		20년 이상	175	4.13	0.53			
수행Ⅱ (학습 지원)	음악 학습 평가	5년 미만	112	3.92	0.66	394	3.093	.016*
		5년~10년 미만	45	4.18	0.62			
		10년~15년 미만	32	4.10	0.50			
		15년~20년 미만	29	4.25	0.47			
		20년 이상	177	4.09	0.55			
	음악 학습 환경 조성	5년 미만	112	3.70	0.74	393	5.498	.000***
		5년~10년 미만	45	4.11	0.80			
		10년~15년 미만	32	4.03	0.67			
		15년~20년 미만	28	4.13	0.50			
		20년 이상	177	3.99	0.59			
	계	5년 미만	112	3.81	0.62	393	5.170	.000***
		5년~10년 미만	45	4.14	0.67			
		10년~15년 미만	32	4.07	0.55			
		15년~20년 미만	28	4.20	0.42			
		20년 이상	177	4.04	0.53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df	F	p- value
태도	태도	5년 미만	112	4.30	0.58	394	1.390	.237
		5년~10년 미만	45	4.50	0.45			
		10년~15년 미만	32	4.29	0.42			
		15년~20년 미만	29	4.36	0.50			
		20년 이상	177	4.36	0.50			
전체	전체	5년 미만	112	4.09	0.49	388	2.239	.064
		5년~10년 미만	43	4.32	0.45			
		10년~15년 미만	32	4.15	0.44			
		15년~20년 미만	28	4.21	0.45			
		20년 이상	174	4.13	0.42			

*p<0.05, **p<0.01, ***p<0.001

3) 학력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

앞의 <표 1>에서 박사과정이상의 빈도가 4로 대학졸업과 석사졸업에 비해 빈도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소 신뢰하기 어려워 석사졸업과 박사과정이상을 통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력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의 인식 수준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졸업의 평균이 4.10, 대학원의 평균이 4.19로 나타났으며 $p=0.055$ 로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역별로 살펴보면 수행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Ⅱ 전체를 살펴보면 $p=0.017$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대학졸업이 3.93, 대학원이 4.06으로 나타나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의 수행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수행Ⅱ의 음악학습 평가를 살펴보면 $p=0.033$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대학졸업이 4.00, 대학원이 4.12로 나타나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의 음악학습평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행Ⅱ의 음악학습환경조성을 살펴보면 $p=0.028$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대학졸업이 3.86, 대학원이 4.01로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가 음악학습환경조성에 대한 인식을 더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소들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학력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df	t	p- value
지식	학생 이해	대학졸업	189	3.90	0.56	394	-1.142	.254
		대학원	207	3.97	0.51			
	음악교과 지식	대학졸업	189	4.07	0.56	393	-1.150	.251
		대학원	206	4.13	0.54			
	계	대학졸업	189	4.01	0.51	393	-1.260	.208
		대학원	206	4.07	0.48			
수행 I (교과 지도)	음악교과 지도	대학졸업	189	4.11	0.55	390	-1.849	.065
		대학원	203	4.22	0.53			
수행 II (학습 지원)	음악학습 평가	대학졸업	188	4.00	0.59	393	-2.135	.033*
		대학원	207	4.12	0.58			
	음악학습 환경조성	대학졸업	187	3.86	0.68	392	-2.209	.028*
		대학원	207	4.01	0.68			
	계	대학졸업	187	3.93	0.57	392	-2.386	.017*
		대학원	207	4.06	0.58			
태도	태도	대학졸업	188	4.31	0.54	393	-1.495	.136
		대학원	207	4.39	0.49			
전체		대학졸업	187	4.10	0.47	387	-1.928	.055
		대학원	202	4.19	0.43			

*p<0.05, **p<0.01, ***p<0.001

4) 학교 급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

소속 학교 급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의 인식 수준 차이를 비교한 결과, $p=0.039$ 로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가 4.19, 고등학교가 4.09로 나타나 중학교 음악교사가 음악교사전문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지식과 수행II에서 학교 급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식의 학생이해를 살펴보면 $p=0.041$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중학교가 3.98, 고등학교가 3.87로 나타나 중학교 음악교사의 학생이해의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식 전체를 살펴보면 $p=0.039$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음악교사가 4.09, 고등학교 음악교사가 3.98로 나타나 중학교 음악교사의 지식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수행II의 음악학습환경조성을 살펴보면 $p=0.003$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음악교사가 4.02, 고등학교가 3.81로 중학교 음악교사의 음악학습환경조성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행II 전체를 살펴보면 $p=0.007$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음악교사가 4.06, 고등학교 음악교사가 3.90으로 나타나 중학

교 음악교사의 수행Ⅱ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요소들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학교 급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df	t	p- value
지식	학생 이해	중학교	240	3.98	0.52	391	2.053	.041*
		고등학교	153	3.87	0.55			
	음악 교과 지식	중학교	239	4.14	0.54	390	1.796	.073
		고등학교	153	4.04	0.55			
	계	중학교	239	4.09	0.49	390	2.067	.039*
		고등학교	153	3.98	0.50			
수행 I (교과 지도)	음악 교과 지도	중학교	237	4.20	0.53	387	1.445	.149
		고등학교	152	4.12	0.56			
수행Ⅱ (학습 지원)	음악 학습 평가	중학교	239	4.11	0.59	390	1.963	.050
		고등학교	153	3.99	0.58			
	음악 학습 환경 조성	중학교	238	4.02	0.67	389	2.946	.003**
		고등학교	153	3.81	0.67			
	계	중학교	238	4.06	0.59	389	2.736	.007**
		고등학교	153	3.90	0.55			
태도	태도	중학교	239	4.38	0.51	390	0.897	.370
		고등학교	153	4.33	0.52			
전체		중학교	234	4.19	0.46	384	2.070	.039*
		고등학교	152	4.09	0.44			

*p<0.05, **p<0.01

5) 학교 규모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

학교 규모의 경우 연속형으로 측정된 자료로 평균은 21.32, 표준편차는 10.70이었다. 또한 최소값은 2, 최대값은 47이었다. 따라서 빈도가 골고루 분포하도록 10단위로 범주를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교 규모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의 인식 수준을 비교한 결과, $p=0.272$ 로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역별로 살펴보면 태도에서 총 학급 수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를 살펴보면 $p=0.041$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31학급이상이 4.44

로 가장 높고 10학급이하가 4.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쉐페(Scheffe)의 사후검정을 한 결과에서는 4개 집단들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던컨(Duncan)의 사후검정을 실행해보면 21~30학급이하와 31학급이상의 집단이 10학급이하인 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요소들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학교 규모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df	F	p- value
지식	학생 이해	10학급이하	78	4.03	0.55	392	.865	.460
		11~20학급이하	98	4.02	0.57			
		21~30학급이하	138	4.10	0.63			
		31학급이상	78	4.08	0.58			
	음악 교과 지식	10학급이하	77	3.93	0.69	391	.915	.434
		11~20학급이하	98	3.94	0.62			
		21~30학급이하	138	3.98	0.72			
		31학급이상	78	3.83	0.68			
	계	10학급이하	78	4.02	0.45	391	.641	.589
		11~20학급이하	99	4.03	0.53			
		21~30학급이하	137	4.09	0.48			
		31학급이상	78	4.00	0.50			
수행 I (교과 지도)	음악 교과 지도	10학급이하	77	4.05	0.56	388	2.558	.055
		11~20학급이하	98	4.12	0.54			
		21~30학급이하	137	4.25	0.52			
		31학급이상	77	4.18	0.54			
수행 II (학습 지원)	음악 학습 평가	10학급이하	78	4.03	0.55	391	.459	.711
		11~20학급이하	98	4.02	0.57			
		21~30학급이하	138	4.10	0.63			
		31학급이상	78	4.08	0.58			
	음악 학습 환경 조성	10학급이하	77	3.93	0.69	390	.784	.503
		11~20학급이하	98	3.94	0.62			
		21~30학급이하	138	3.98	0.72			
		31학급이상	78	3.83	0.68			
	계	10학급이하	77	3.98	0.56	390	.443	.723
		11~20학급이하	98	3.98	0.55			
		21~30학급이하	138	4.04	0.62			
		31학급이상	78	3.96	0.57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df	F	p- value
태도	태도	10학급이하	78	4.24	0.51	391	2.780	.041*
		11~20학급이하	98	4.30	0.52			
		21~30학급이하	138	4.40	0.52			
		31학급이상	78	4.44	0.49			
전체		10학급이하	76	4.08	0.44	385	1.307	.272
		11~20학급이하	97	4.11	0.46			
		21~30학급이하	136	4.20	0.46			
		31학급이상	77	4.16	0.44			

*p<0.05

6) 음악 교과 관련 연구회 또는 학회 활동 경험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

음악 교과 관련 연구회 또는 학회 활동 경험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의 인식 수준 차이를 비교한 결과, $p=0.006$ 으로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험이 4.19, 무경험이 4.06으로 나타나 유경험자의 음악교사전문성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수행Ⅱ와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행Ⅱ의 음악학습평가를 살펴보면 $p=0.005$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경험이 4.12, 무경험이 3.95로 나타나 유경험자의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행Ⅱ의 음악학습환경조성을 살펴보면 $p=0.000$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경험이 4.05, 무경험이 3.71로 나타나 유경험자의 음악학습환경조성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수행Ⅱ 전체를 살펴보면 $p=0.000$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경험이 4.09, 무경험이 3.83으로 나타나 유경험자의 수행Ⅱ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도를 살펴보면 $p=0.007$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경험이 4.40, 무경험이 4.26으로 나타나 유경험자의 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음악 교과 관련 연구회 또는 학회 활동 경험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df	t	p- value
지식	학생 이해	유	260	3.95	0.52	393	0.730	.466
		무	135	3.91	0.56			
	음악 교과 지식	유	259	4.13	0.53	392	1.473	.142
		무	135	4.04	0.58			
	계	유	259	4.07	0.48	392	1.350	.178
		무	135	4.00	0.52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df	t	p- value
수행 I (교과 지도)	음악 교과 지도	유	256	4.21	0.53	389	1.905	.057
		무	135	4.10	0.56			
수행 II (학습 지원)	음악 학습 평가	유	260	4.12	0.58	392	2.804	.005**
		무	134	3.95	0.59			
	음악 학습 환경 조성	유	260	4.05	0.67	391	4.768	.000***
		무	133	3.71	0.64			
	계	유	260	4.09	0.57	391	4.231	.000***
		무	133	3.83	0.55			
태도	태도	유	260	4.40	0.50	392	2.708	.007**
		무	134	4.26	0.54			
전체		유	255	4.19	0.44	386	2.762	.006**
		무	133	4.06	0.47			

*p<0.05, **p<0.01, ***p<0.001

7) 대학 강사 또는 연수 강사 경험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

음악 교과 관련 대학 강사 또는 연수 강사 경험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p=0.043$ 으로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경험이 4.23, 무경험이 4.12로 나타나 유경험자의 음악교사전문성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영역별로 수행II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행II의 음악학습평가를 살펴보면 $p=0.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경험이 4.24, 무경험이 4.01로 나타나 유경험자의 음악학습평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행II의 음악학습환경조성을 살펴보면 $p=0.000$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경험이 4.16, 무경험이 3.86으로 나타나 유경험자의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행II 전체를 살펴보면 $p=0.000$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경험이 4.20, 무경험이 3.94로 나타나 유경험자의 수행II 전체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대학 강사 또는 연수 강사 경험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df	t	P-value
지식	학생 이해	유	96	3.94	0.53	392	0.130	.896
		무	298	3.94	0.54			
	음악 교과 지식	유	96	4.13	0.56	391	0.690	.490
		무	297	4.09	0.55			
	계	유	96	4.07	0.50	391	0.558	.577
		무	297	4.04	0.49			
수행 I (교과 지도)	음악 교과 지도	유	95	4.26	0.54	388	1.942	.053
		무	295	4.14	0.54			
수행 II (학습 지원)	음악 학습 평가	유	96	4.24	0.53	391	3.315	.001**
		무	297	4.01	0.60			
	음악 학습 환경 조성	유	96	4.16	0.58	390	3.834	.000***
		무	296	3.86	0.70			
	계	유	96	4.20	0.51	390	3.950	.000***
		무	296	3.94	0.59			
태도	태도	유	96	4.41	0.51	391	1.074	.283
		무	297	4.34	0.51			
전체		유	95	4.23	0.45	385	2.033	.043*
		무	292	4.12	0.45			

*p<0.05, **p<0.01, ***p<0.001

8) 음악 교직 관련 수상 경력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

음악 교직 관련 수상 경력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의 인식 수준을 비교한 결과, $p=0.000$ 으로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경력이 4.28, 무경력이 4.09로 나타나 유경력자의 음악교사전문성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지식, 수행 I, 수행 II, 태도의 모든 요인에서 수상 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식의 학생이해를 살펴보면 $p=0.003$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경력이 4.05, 무경력이 3.88로, 유경력자의 학생 이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식 전체를 살펴보면 $p=0.019$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경력이 4.13, 무경력이 4.00으로 나타나 유경력자의 지식 전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수행 I은 $p=0.003$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경력이 4.29, 무경력이 4.11로 나타나 유경력자의 음

악교과지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수행Ⅱ의 음악학습평가를 살펴보면 $p=0.000$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경험이 4.27, 무경험이 3.97로 나타나 유경력자의 음악학습평가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행Ⅱ의 음악학습환경조성을 살펴보면 $p=0.000$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경력이 4.22, 무경력이 3.80으로 나타나 유경력자의 음악학습환경 조성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수행Ⅱ 전체를 살펴보면 $p=0.000$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경력이 4.25, 무경력이 3.88로 나타나 유경력자의 수행Ⅱ 전체의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도를 살펴보면 $p=0.016$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경력이 4.45, 무경력이 4.31로 나타나 유경력자의 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 음악 교과 관련 수상 경력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df	t	p-value
지식	학생 이해	유	125	4.05	0.53	394	2.972	.003**
		무	271	3.88	0.53			
	음악 교과 지식	유	125	4.17	0.59	218	1.655	.099
		무	270	4.07	0.52			
	계	유	125	4.13	0.53	393	2.349	.019*
		무	270	4.00	0.47			
수행 I (교과 지도)	음악 교과 지도	유	124	4.29	0.51	390	3.023	.003**
		무	268	4.11	0.55			
수행 II (학습 지원)	음악 학습 평가	유	125	4.27	0.53	393	4.961	.000***
		무	270	3.97	0.59			
	음악 학습 환경 조성	유	125	4.22	0.58	392	5.943	.000***
		무	269	3.80	0.68			
	계	유	125	4.25	0.52	392	6.059	.000***
		무	269	3.88	0.57			
태도	태도	유	125	4.45	0.48	393	2.418	.016*
		무	270	4.31	0.53			
전체		유	124	4.28	0.43	387	3.872	.000***
		무	265	4.09	0.45			

* $p<0.05$, ** $p<0.01$, *** $p<0.001$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중등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음악교사전문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배경변인에 따른 인식 수준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음악교사전문성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먼저 교사전문성 관련 국내외 논문을 종합·분석하여 교사전문성의 구성요소가 지식, 수행, 태도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의 문항을 국·내외의 음악교사의 자질 기준, 음악교사의 자격 기준, 음악 교원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 음악 교수 역량 관련 연구, 음악과 수업 평가 기준, 음악과 교육과정 등의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음악교사전문성의 각 하위 영역에 따라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지식, 수행 I(교과지도), 수행 II(학습지원), 태도의 총 4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탐색된 척도의 문항은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 검증을 받았고, 이 과정을 통해 33개 문항으로 예비조사 측정도구가 구성되었다.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척도의 시안을 개발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의 중등학교 음악교사 3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4개 영역의 6개 하위요소에 걸쳐 총 31문항의 음악교사전문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음악교사전문성 척도는 4개 영역에서 31문항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4개 영역의 설명변량은 60.877%로 나타났다. 음악교사전문성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영역은 수행영역(수행 I 과 수행 II)이었으며 다음으로 태도, 지식영역이었다. 추출된 4개 영역의 하위영역에 대한 2차 요인분석 결과, 총 6개 요소의 31문항으로 추출되었다. 따라서 1차와 2차에 걸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최종적으로 4개 영역에서 6개 요소의 총 31문항에 대한 구인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둘째, 음악교사전문성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55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로는 지식이 .900, 수행 I(교과지도)이 .866, 수행 II(학습지원)가 .880, 태도가 .923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하위요소로 살펴보면 학생이해가 .745, 음악교과지식이 .904, 음악교과지도가 .866, 음악학습평가가 .842, 음악학습환경조성이 .836, 태도가 .923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음악교사전문성의 인식 수준의 차이를 살

펴본 결과, 음악교사전문성의 전체적인 인식 수준은 성별, 경력, 학력, 학교 규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급, 연구회 또는 학회 활동 경험, 대학 강사 또는 연수 강사 경험, 음악 교직 관련 수상 경력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에 따른 인정을 받은 교사일수록 자신의 전문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더 높게 전문성 수준을 인식하였는데, 이는 현행 교육과정의 교과 시수에 따라 중학교에서 보다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할 수 있고, 음악 교과의 비중이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학교 음악교사가 전문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하위요소별로 살펴보면, 지식 영역의 하위요소인 학생이해와 태도에서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Ⅱ(학습지원) 영역에서는 5년 미만의 교사 보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였고, 대학졸업자보다 대학원 졸업자가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태도 영역에서는 10학급 이하보다 21학급 이상의 학교 규모에 소속된 교사의 인식 수준이 높았다. 이는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학생을 이해하는 정도와 교직원 및 자기개발의지 등의 태도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고, 5년 미만의 신규교사보다는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력 교사와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가 음악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자신의 수행능력을 더 높게 인식하며, 학교 규모가 클수록 교사가 태도에 대한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제한점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전국의 중등학교 음악교사 3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중등학교에 음악교사가 1~2명이라는 제한적이고 특수한 교과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인식을 수량화 하여 분석하여 실제 행동과 해석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준거 관련 타당도 검증을 위한 교사들의 수행 수준 및 성취도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변수로 교사들의 근무교과나 학생들의 음악 학업성취도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음악교사전문성 척도의 각 항목별 채점 기준을 설정하여 현장 음악교사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 개발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음악교사전문성 척도는 일반적인 교사 전문성 척도의 한계에서 벗어나, ‘음악’이라는 교과 특수성에 맞게 개발된 척도로 각 요인에 대한 구체적 항목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음악교사전문성 척도를 활용해서 중등학교 음악교사의 전문성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음악교사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음악 교원 양성 교육과정 및 음악교사전문성 개발 연수 프로그램의 구성 및 개선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음악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2]).
- 김이경 (2006). 교사 평가 시스템 분석 및 향후 개선 방향. **교육비평** 20, 14-32.
- 김옥예 (2006). 교사 전문성의 재개념화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4(4), 139-160.
- 민경훈 외 (2010).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 민경훈 (2014). 교과교육학의 관점에서 중등학교 음악교사의 역량 강화에 관한 논의. **음악교육공학**, 18, 251-274.
- 백순근 (2005). 교사용 실천지능검사의 구성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교육평가연구**, 18(2), 59-77.
- 변미혜 (2013). 중등 음악 임용고사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향. **국악교육** 36, 83-103.
- 석문주 (2008). 미국 음악교사기준의 새로운 변화. **음악교육연구**, 34, 25-57.
- 성경희 (1985). 유능한 음악교사의 특성 및 자질에 관한 문헌연구. **한국교육**, 12(1), 185-198.
- 이돈희 (2000). 21세기의 교사상과 교직. **한국교사교육**, 17(1), 1-18.
- 이인제, 장기범 (2008).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표시과목 「음악」의 교사자격 기준개발과 평가영역 상세화 및 수업능력 평가연구, 연구보고 CRE 2008-6-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종재, 김왕준(2003). 교원인사제도 혁신 논의의 방향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1(4). 259-278.
- 임미경, 장기범, 함희주(2004).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인천: 예종.
- 임찬빈, 이경언 (2006). **수업평가 매뉴얼: 음악과 수업평가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동섭 (2005).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교육선진화를 위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3-17.
- 조흥기 (2004). **코다이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최미영 (2012). 음악교사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음악교육연구**, 41(2), 339-368.
- 최은식 (2006). 미국 음악교사 양성제도의 새로운 동향. **음악과 문화** 15, 59-76.
- 허은정 (2011). **학습조직이 교사전문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Edwards, R. (1970). *The Complete Music Teacher*. Los Altos, C.A.: Geron-X, Inc.
- Hoffer, C. R. (1993). **음악교사론**. 안미자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MENC (1972). *Teacher education in music: Final report*. Reston, VA.: Author.
- MENC (1987). *Music teacher education: Partnership and process*. Reston, VA: Author.
- Michael, L. M. (1992). **현대의 음악교육**. 이흥수 외 역. 서울: 세광출판사.
- Raiman, M. L. (1975). *The identification and hierarchical classification of Competencies and objective of Student teaching in music through a partial Delphi surve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Taylor, B. P. (1980). *Relative Importance of Various Competencies Needed by Choral-General Music Teacher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s Rated by College Supervisors, Music Supervisors and Choral-General Music Teac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ABSTRACT

Construction of music teacher Professionalism Scale and Analysis of the Recognition Level

In-hye H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music teacher professionalism scale and analysis of the recognition level in secondary general music teachers. In the process, music teacher professionalism preliminary scale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nd it was administered to 397 secondary music teachers. After data analyzing, a total of 31 items with 6 sub-constructs in the 4 areas was identified by the means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es, thus clearly establishing the construct validity. The overall internal consistency was quite high(Cronbach's $\alpha=.955$). The overall recognition level of music teacher professionalism was not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variables of gender, teaching career, education level, and school size; however the overall recognition level of music teacher professionalism was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variables of school level, music education-related experiences such as being a member of teacher's communities or academic societies, being a university lecturer or a teacher trainer, and award winning career.

Key words: teacher professionalism, music teacher professionalism, scale construction

투고일: 2014년 8월 31일, 심사(수정): 10월 20일(10월 28일), 게재확정일: 11월 20일